

인권센터 운영 부실, 본부 개선 계획 밝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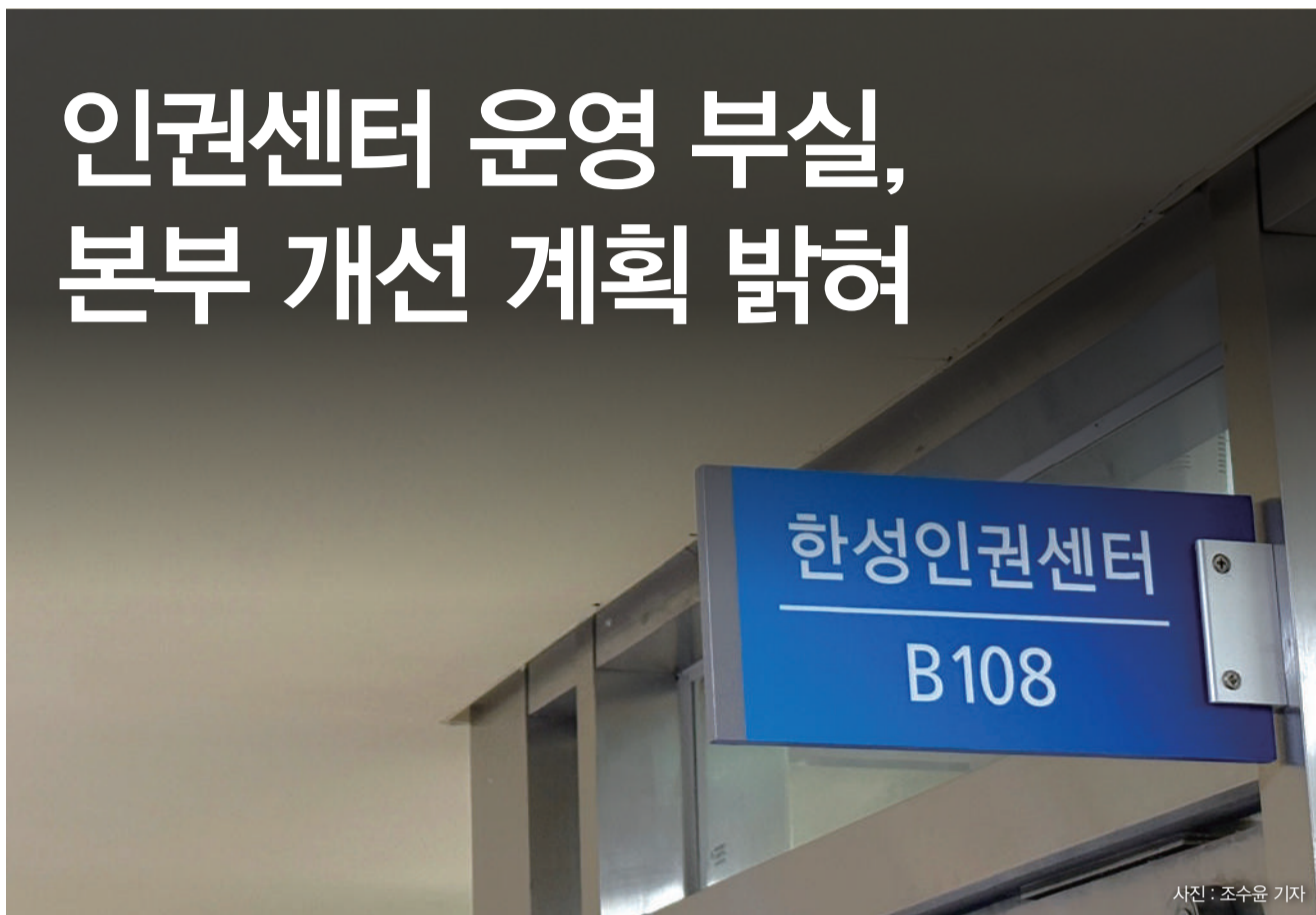


사진: 조수윤 기자

▲상상관 지하 1층에 위치한 본교 인권센터 입구

‘한성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의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은 인권센터의 모든 구성원이 다른 부서와의 겸직 없이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야 하지만, 본교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또한 성범죄 등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본교에서 진행하는 재학생 대상 ‘폭력예방 통합교육(이하 예방교육)’의 이수율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학본부는 인력 구조상 불가피하게 겸직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예방 교육 이수율 감소는 기준 변경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인권센터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모든 대학에 필수적으로 설치돼 학내 인권 보호와 성범죄 피해 지원을 담당한다. 해당 법령에 따라 본교에는 2022년 5월 인권센터가 설치

됐으며, 동법 제19조의3 제2항에 따라 ▲인권침해 행위 등에 대한 상담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인권센터 설치 전후로 본교에서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본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학안전관리계획(2025년)」의 성범죄 피해현황에 따르면 2021년 성희롱 2건으로 피해자 9명이 발생했고, 2022년 성폭력 1건으로 피해자 1명이 확인됐다. 지난해에도 성폭력 사건 1건으로 1명의 피해자가 보고됐다.

교내 성범죄 사건 발생에 대해 대학본부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성범죄 등의 사안에 있어 적절히 운영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규태(한성인권센터) 센터장은 “사건의 구체적인 조치 내용

은 당사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제공할 수 없다”며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권센터 설립 이전에는 학생생활상담센터를 중심으로, 인권센터 설립 이후 동 센터가 전담 기관으로서 관련 사안을 엄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인권센터 인력이 타 부서를 겸직 중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현행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3은 대학이 인권센터 설치·운영할 때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지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인권센터 보직 총 4인 중 3인이 타 직무를 겸임하고 있다. 상술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센터의 전담 인력 배치와 법령에 따른 인력 기준 충족 등을 권고했다.

대학본부 측은 자원과 인력의 한계로 인해 현재 겸직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인권센터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센터장은 “현재 본교의 인력 구조상 인권센터의 인력을 일부 부서와 겸직 체제로 운영 중”이라며 “1명의 전담 인력을 배정해 인권센터의 전담 인력 배치 기준은 충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겸직자를 포함한 모든 인력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주관의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원 직무교육을 이수해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권센터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본교 재학생의 예방 교육 이수율이 감소하고 있다. 본교는 온라인 등을 통해 매년 1회 이상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포함한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대학정보공시의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에 따르면, 재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율은 2021년 58.5%, 2022년 57%, 2023년 55.1%로 해마다 소폭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본부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예방 교육 이수 대상의 기준이 변경되며 일시적으로 이수율이 감소했지만, 현재는 예방 교육을 개선시켜 지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조 센터장은 “2022년까지는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 교육 대상자를 바탕으로 이수율을 산정했으나, 2023년부터는 4월 1일자 대학정보공시 인원을 기준으로 삼아 이수율을 계산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는 해당 기준을 반영해 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전체 이수율 향상에 기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센터 운영과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조 센터장은 “올해 인권서포터즈를 모집해 재학생 중심의 예방 교육 홍보 및 참여 유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며 “예방 교육 참여율을 제고하고 인권 친화적 학내 문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희 기자 sun2sideup03@naver.com

계절학기 설문조사 실시, 학생들의 만족도는?

오는 24일 여름계절학기가 개강한다. 계절학기는 하계방학 또는 동계방학 중에 개설되는 학기로, 정규학기 중 수강하지 못한 수업을 듣거나 미리 학점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을 위해 열린다. 본지에서는 계절학기 전반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및 의견을 듣고자 ‘계절학기 학생 만족도 조사(이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구글폼을 통해 진행됐으며, 본교 재·휴학생 및 졸업생 등 총 188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는 희망개설강좌 설문조사 만족도, 수강신청 만족도, 성적이의신청 만족도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들로 이뤄졌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 중 계절학기를 수강한 적이 있거나 계획한 학생은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귀하는 계절학기를 수강한 경험이 있거나, 수강을 계획한 적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예(42.6%)’, ‘아니오(57.4%)’ 응답이 집계됐다. 계절학기 수강을 계획하지 않은 이유로는 ▲방학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39.8%) ▲수강하고 싶은 강좌가 개설되지 않아서(36.1%) ▲계절학기 수강료가 비싸서(28.7%) 등이 꼽혔다. 이진형(기계전자 2) 학생은 “계절학기의 뚜렷한 이점을 느끼기 어렵고, 학교 측의 구체적인 안내도 부족해 수강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 2면에 계속

박석희 기자 sukhee121@naver.com

성북어린이청소년도서관 14일 개관 예정

오는 14일 성북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도서관)이 개관된다. 도서관은 성북구 삼선동 삼선초등학교 옆에 위치해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유롭게 독서 및 문화 예술을 즐기기에 적합한 공간으로 기획됐다. 도서관은 누구나 방문 가능하지만, 유아자료실과 어린이자료실은 성인의 단독 이용이 제한된다.

도서관은 연령대별 성장과정에 맞는 책과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층별로 ▲유아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청소년자료실 ▲창작소 ▲세미나실 및 옥상정원으로 조성됐다. 각 자료실에는 그림책, 아동서, 만화책 등 독자층을 고려한 도서가 구비돼 있다. 창작소에는 3D 영상기기 등의 설비와 계단열람석,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공간도 갖춰져 있다. 세미나실과 옥상정원은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개방형 공간으로 조성됐다.

도서관에서는 본교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학기에 지식정보문화트랙 캡스톤디자인 과목을 진행한 바 있으며, 하계 방중 해당 과목에서 수



▲성북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외관

행한 결과물 실행을 진행한다. 동기간 상술한 트랙과 함께 진로 탐색 프로그램도 기획됐다. 2학기에는 해당 트랙과 협력해 북큐레이션 등의 프로그램도 실시된다. 김정호(성북어린이청소년도서관) 관장은 “한성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와 협력해 도서관 로고를 개발하기도 했다”며 “이외에도 한성대학교의 인프라를 활용해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서관 1층에는 도서대출반납 및 위치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 사서 ‘로

미’가 서울특별시 최초로 도입되기도 했다. 김 관장은 “이용자에게 책 위치 안내와 대출 가능 여부 등 많은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 관장은 “도서관이 막 개관한 만큼 8월 31일까지 임시 운영되며 도서 대출·반납 등의 서비스는 9월부터 활용 가능하다”며 “성북구 삼선동을 대표하는 즐거운 책놀이 공간이자 치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윤 기자 wateryun77@naver.com

혐오 표현 그림 게시 논란돼

지난 3일 혐오 표현이 담긴 그림이 본교 곳곳에 무단 게시돼 논란이 일었다. 문제의 그림에는 욕망기와 태극기를 합성한 그림, 여성 비하 표현 등의 요소가 포함돼 있었다. 해당 그림은 ▲연구관 승강기 ▲지선관 ▲상상파크 등의 공간에 부착됐으며, 설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학본부의 조치로 전부 철거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학본부는 학생처 주관의 조사심의 위원회(이하 조사위)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그림은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설치물로 설치 후 약 40분 뒤에 수거됐다. 오후 11시 10분경 미승인 전시물이 설치됐으며, 약 20분 뒤 대학본부 당직 근무자가 전시물 설치 학생에게 연락을 취했다. 이후 오후 11시 50분경 대학본부의 조치로 자진 철거됐다. 대학본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해당 사건은 본교 특정 재학생의 일탈된 행동을 본부 측에서 스스로 철거하게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본교 규정에 따라 혐오 표현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징계 처리된다. 『학생 집단 활동 안전관리 규



▲수거된 혐오 표현 그림들이 놓여있다.

정』에 따르면 인권침해 행위는 학생의 집단 활동 중 문자·언어적 가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를 의미한다. 인권침해가 성립될 경우, 『한성대학교 학칙』에 따라 학생지도위원회 산하 상벌분과위원회를 거쳐 징계가 부과될 수 있다.

대학본부는 현재 조사위를 구성 중이며, 신중한 논의를 거쳐 후속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중집(학생장학팀) 팀장은 “사건 관계자를 모두 파악하며 조사위를 구성하고 있다”며 “사건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고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승희 기자 sun2sideup03@naver.com

만족·불만족 교차한 계절학기, 일부 불편도 존재

본부 “수요가 적은 과목 개설은 어려워”

계절학기를 수강한 학생 80명 중 계절학기 희망개설강좌 설문조사(이하 희망강좌조사)는 절반 이상의 학생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희망강좌조사는 매년 4월과 10월에 약 일주일 동안 실시된다. ‘계절학기 희망개설강좌 설문조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예(53.8%)’, ‘아니오(46.3%)’ 응답이 도출됐다.

희망강좌조사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학생과 불만족 학생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계절학기 희망개설강좌 설문조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만족(8.8%)’, ‘만족(25.0%)’, ‘보통(42.5%)’, ‘불만족(17.5%)’, ‘매우 불만족(6.3%)’의 응답이 기록됐다.

희망강좌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전공·교양과목을 전부 고를 수 있다는 점을 대표적인 만족 이유로 꼽았다. 구체적으로 ‘전공·교양과목을 모두 선택할 수 있어서(48.1%)’, ‘희망강좌조사 시행 시기가 적절해서(44.4%)’ 등이 꼽혔다. 최진호(컴공 4) 학생은 “희망강좌조사에서 선택할 수 있는 교과목의 선택 범위가 넓다는 점이 이점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희망강좌조사 불만족의 사유로는 신청한 과목이 실제로 개설되지 않은 점이 가장 많이 지목됐다. 불만족의 이유로 ‘희망강좌조사에서 신청한 과목이 개설되지 않아서(63.2%)’, ‘희망강좌조사 기간이 짧아서(31.6%)’ 등이 존재했다. 유현서(컴공 4) 학생은 “희망강좌조사에서 전공필수 교과목을 신청했지만 개설되지 않아 불만족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희망강좌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은 조사 기간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관련 안내를 충분히 받지 못한 점을 불만족의 주된 이유로 꼽았다. 희망강좌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는 ▲희망강좌조사 기간을 인지하지 못해서(59.5%) ▲희망강좌조사 관련 안내나 공지를 받지 못해서(59.5%) ▲희망강좌조사가 실제 강좌 개설에 반영되지 않을 것 같아서(13.5%) 등이 지목됐다. 황유림(컴공 2) 학생은 “희망강좌조사 관련 안내 공지를 받지 못해 희망강좌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서현(AI응용 2) 학생은 “학과의 전공과목 자체가 개설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 희망강좌조사에 불참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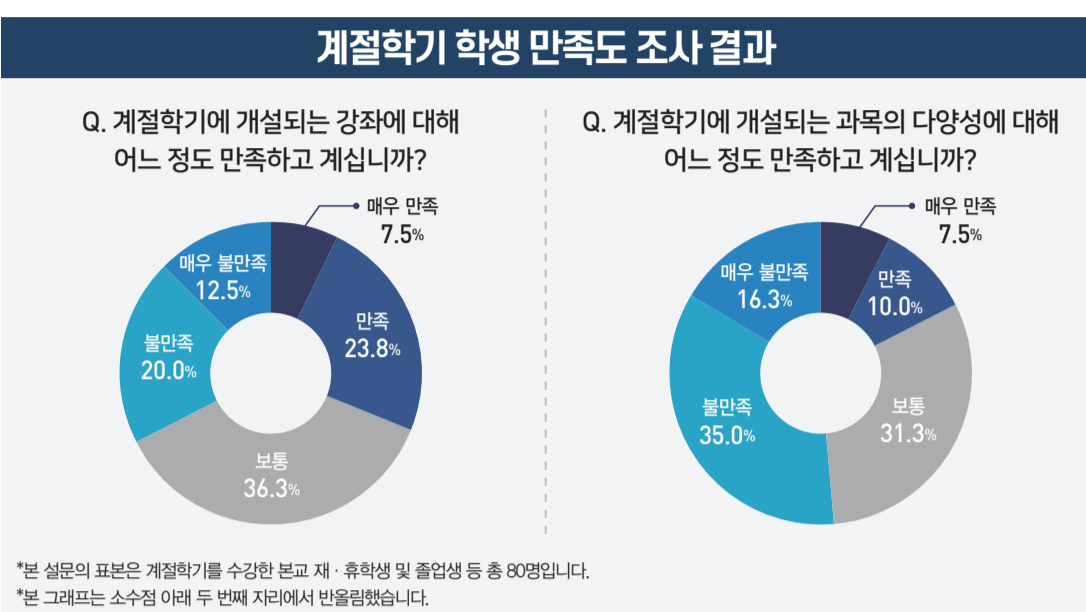
응답자들은 계절학기 수강신청과 관련해 대체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계절학기 수강신청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만족(11.3%)’, ‘만족(30.0%)’, ‘보통(37.5%)’, ‘불만족(10.0%)’, ‘매우 불만족(11.3%)’의 응답이 도출됐다. 만족의 이유로는 정규학기에 비해 계절학기 수강신청이 용이하다는 점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계절학기 수강신청에 대해 만족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정규학기에 비해 계절학기보다 쉬워서(57.6%)’, ‘수강료 및 수강료 반환이 허용돼서(30.3%)’ 등의 의견이 집계됐다. 김동하(IT 1) 학생은 “정규학과 달리 계절학기는 모든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쉽다”고 말했다.

계절학기 개설 강좌에 대한 만족도는 긍·부정 응답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계절학기에 개설되는 강좌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만족(7.5%)’, ‘만족(23.8%)’, ‘보통(36.3%)’, ‘불만족(20.0%)’, ‘매우 불만족(12.5%)’의 응답이 나타났다.

만족한 학생들은 정규학기에 비해 계절학기 강좌 수강이 수월하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지목했다. 만족 이유로 ‘정규학기 강좌보다 수강이 쉬워서(44.0%)’, ‘선택할 수 있는 강좌 수가 많아서(36.0%)’ 등이 존재했다. 정의성(사회과학 4) 학생은 “계절학기는 정규학기보다 교수자의 수업 진행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뤄진다”고 답했다.

계절학기 개설 강좌에 대한 만족도는 긍·부정 응답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계절학기에 개설되는 강좌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만족(7.5%)’, ‘만족(23.8%)’, ‘보통(36.3%)’, ‘불만족(20.0%)’, ‘매우 불만족(12.5%)’의 응답이 나타났다.

만족한 학생들은 정규학기에 비해 계절학기 강좌 수강이 수월하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지목했다. 만족 이유로 ‘정규학기 강좌보다 수강이 쉬워서(44.0%)’, ‘선택할 수 있는 강좌 수가 많아서(36.0%)’ 등이 존재했다. 정의성(사회과학 4) 학생은 “계절학기는 정규학기보다 교수자의 수업 진행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뤄진다”고 답했다.



불만족 학생들의 경우 선택할 수 있는 강좌 수가 적은 점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불만족의 이유로는 ‘선택할 수 있는 강좌 수가 적어서(92.3%)’, ‘정규학기 강좌보다 수강이 어려워(30.8%)’ 등이 꼽혔다. 유학생은 “전공필수 과목은 계절학기에 거의 개설되지 않으니 불편함을 느꼈다”고 밝혔다.

계절학기 개설 과목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과반 이상의 학생들이 불만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절학기에 개설되는 과목의 다양성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불만족(35.0%)’, ‘매우 불만족(16.3%)’으로 집계되며 총 51.3%의 학생이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불만족의 이유는 ‘학기 중에 수강하지 못한 과목이 계절학기에 개설되지 않아서(70.7%)’, ‘일부 단과대학의 전공과목만 개설돼서(68.3%)’ 등이 지목됐다. 이서현 학생은 “IT공과대학 위주로 계절학기 과목이 개설되다 보니 타 단과대학 학생들은 계절학기를 수강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고 전했다.

계절학기 전공 선택 범위에 대한 불만사항의 타당성을 묻는 문항에 있어서는 대다수의 학생이 타당하다고 답변했다. 교양필수 과목으로 교과목이 주로 구성되며 선택필수 교양 및 전공 교과목이 부족하다는

점이 불만의 주된 이유였다. ‘계절학기 전공 선택 범위에 대한 불만사항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예(83.8%)’, ‘아니오(16.2%)’의 응답이 집계됐다. 타당하다는 의견 중에서는 ‘교과목 선택권이 극히 제한돼 있으므로(73.1%)’의 응답이 가장 많았다.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단이 계절학기의 교과목 수가 제한적인 것이 당연하므로(69.2%)’의 응답이 가장 많이 기록됐다. 황 학생은 “계절학기 교과목 선택권이 제한돼 있는 점은 학생들의 트랙 선택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계절학기 강좌 다양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전공과목 필수 지정, 과목 폐강 기준 완화 등의 의견을 표명했다. ‘계절학기에 개설되는 강좌의 다양성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단과대학별 전공과목을 필수적으로 지정한다(53.8%)’, ‘과목 폐강 기준을 완화한다(52.5%)’ 등의 의견이 주를 이뤘다. 정 학생은 “단과대학별 전공과목이 1개 이상씩 개설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대학본부 측은 학생들의 수요가 적은 과목은 개설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계절학기제에 관한 세칙’ 제4조에 따

르면 개설 과목 중 수강신청자가 전공과목 10인 미만, 교양과목 15인 미만일 경우에는 개설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박용훈(학사지원팀) 팀장은 “폐강되는 강좌는 학생들의 수요가 1~2명에 불과해 폐강되는 것”이라며 “학생들의 수요가 기준에 부합하면 전부 개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본부는 계절학기 교과목 개설의 지표가 되는 희망강좌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공지사항뿐만 아니라 문자를 통한 안내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팀장은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끔 희망강좌조사 관련 문자 발송 등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계절학기 수강료에 대해서는 만족 학생에 비해 불만족 학생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학기 수강료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만족(3.8%)’, ‘만족(12.5%)’, ‘보통(45.0%)’, ‘불만족(30.0%)’, ‘매우 불만족(8.8%)’의 응답이 도출됐다. 불만족의 이유로는 ‘수강료가 비싸서(96.8%)’, ‘수강료 환불이 어려워(19.4%)’ 등이 있었다. 정 학생은 “수강료 납부 기간이 짧은 상황에서 1시간당 8만 원을 내야 한다는 점에 불만이 생긴다”고 답했다.

대학본부는 학생들의 수강료가 강사료 등 계절학기 운영에 필요한 별도 지출에 사용된다는 입장이다. 박 팀장은 “계절학기는 추가적인 강사료 지출로 인해 학생들의 수강료뿐만 아니라 학교 측에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계절학기 수강료 인하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계절학기 수업기간에 대해서는 만족 학생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절학기는 정규학기 종강 후 3주 동안 진행된다. ‘계절학기 수업기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만족(8.8%)’, ‘만족(38.8%)’, ‘보통(40.0%)’, ‘불만족(8.8%)’, ‘매우 불만족(3.7%)’의 응답이 존재했다. 만족의 이유로는 ‘수업기간이 적당해서(92.1%)’, ‘수업 진도를 원활하게 따라갈 수 있어서(23.7%)’ 등이 있었다. 최 학생은 “계절학기 수업은 매일 진행되다 보니 전날 배운 내용을 기억하기 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계절학기 성적이의신청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도 만족 의견이 불만족 의견보다 소폭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학기 성적이의신청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만족(5.0%)’, ‘만족(27.5%)’, ‘보통(53.8%)’, ‘불만족(8.8%)’, ‘매우 불만족(6.0%)’의 수치가 기록됐다. 만족의 이유로는 ‘성적이의신청 기간 안내가 잘 이뤄져서(53.8%)’, ‘교수자가 성적이의신청을 빠르게 반영해서(46.2%)’ 등이 지목됐다. 최 학생은 “시험이 끝난 후 담당 교수자가 계속해서 성적이의신청 기간을 공지했다”고 전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대해 대학본부 측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계절학기 희망강좌조사 또는 수강신청 기간을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희망강좌조사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 이를 토대로 수강신청을 포함해 전체적인 계절학기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전했다.

박석희 기자 sukhee121@naver.com

본교 RISE 사업 수행대학 선정

지난 20일 본교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이하 라이즈 사업)’에 사업 수행 대학으로 선정됐다. 라이즈 사업은 서울특별시와 대학과 함께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본교는 ▲지역 현안 문제 해결 ▲서울-지방 공유 협력 활성화 ▲서울 평생교육 고도화 등 3개 과제에 선정됐으며, 5년간 6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대학본부는 본교가 지역 문제 해결에 첨단 기술을 접목한 성과 본교가 보유한 교육 역량 및 제도 등을 인정받아 사업에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지역 현안 문제 해결’ 과제에서 웨어러블 로봇 기술 실증을 통해 이동약자의 불편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지방 공유 협력 활성화’

과제는 서울-지방대학 간 공동창업교육이 목적으로 이에 본교의 창업 교육 역량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았으며, ‘서울 평생교육 고도화’ 과제는 본교의 성인친화적 학사제도 및 지역 연계 평생교육 인프라로 대학과 지역 커뮤니티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사업비는 각 단위과제별 추진과제 이행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김은주(RISE 사업단) 부단장은 “사업비는 인건비, 장학금,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단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전략적 연계를 통해,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혁신 거점 대학으로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김혜윤 기자 purple.pea06@gmail.com

제20회 한성인 글쓰기 대회 성황리에 마무리

‘제20회 한성인 글쓰기 대회’가 5월 15일 탐구관 B101호 및 B102호에서 진행됐다.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글쓰기 대회에는 154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시상식은 지난 5월 상상관 9층 대회의실에서 이뤄졌다.

이번 글쓰기 대회의 주제는 올바른 ‘직업 윤리’ 자세 및 직업 윤리에 위반되는 비리를 막기 위한 해결책과 콜포비아(Call Phobia)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의사소통 측면에서 미칠 영향이었다. 참가자는 2개의 주제 중 1개를 선택하고 동시대의 대학생들을 예상 독자로 설정해 자신의 의견을 작성해야 했다. 사고와표현과정 소속 연구원과 교수진이 심사를 맡았으며, ▲표현력 ▲이해력 ▲논리력 ▲비판력 ▲구성력 등이 주된 평가 기준이었다.

대회에 참여한 모든 학생에게는 25pt의 비교과 포인트가 제공됐다. 시상식에서는 ▲최우수상(1명) ▲우수상(4명) ▲장려상(5명) 수상자에게 각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이 지급됐다. 시상식에는 이창원 총장, 사고와표현과정 소속 교수진이 참석했다.

글쓰기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정지원(인문 3) 학생은 “문제의 요구사항을 계속해서 확인하며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글을 작성하려 노력했다”며 “글 안에 나만의 개성을 담는 것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현성(사고와표현과정) 학술연구원은 “글쓰기 대회는 사고력 함양에 있어 학생들에게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 더욱 많은 학생들이 글쓰기 대회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수윤 기자 wateryun77@naver.com

학생이 이어준 진로 가이드, 트랙설명회 성료

2025학년도 ‘전공트랙 진로 설명회’(이하 트랙설명회)가 개최됐다. 트랙설명회는 트랙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학생의 원활한 트랙 선택을 돕기 위해 매년 진행되는 행사다. 총 49개 부스가 열렸으며 행사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비교과 포인트가 지급되고, 추첨을 통해 경품도 증정됐다.

이번 행사에서 운영된 부스는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디자인대학 ▲IT공과대학 ▲창의융합대학 ▲트랙·학과(부)와 학사지원팀 등을 포함해 총 49개였다. 참여 학생은 각 트랙 부스에 있는 학생 및 교직원과의 상담을 통해 해당 전공에 대한 정보를 얻고, 취업이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다.

방문한 부스 개수에 따른 비교과

포인트 지급과 경품 추첨도 이뤄졌다. 1개 부스에 방문할 시 비교과 포인트 5pt가 지급됐고, 최대 20pt까지 획득이 가능했다. 또한 4개 부스 이상 방문한 학생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스타벅스 E-Gift Card 2만 원권’이 제공됐다.

행사에 참여한 김건우(기계전자 2) 학생은 “관심 분야의 전망과 수강한 과목이 어떤 직무와 연관되는지 알고 싶어 참여했다”며 “트랙설명회를 통해 평소 궁금했던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모바일 학내 트랙·학과(부)와 학사지원팀 등을 포함해 총 49개였다. 참여 학생은 각 트랙 부스에 있는 학생 및 교직원과의 상담을 통해 해당 전공에 대한 정보를 얻고, 취업이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다.

김혜윤 기자 purple.pea06@gmail.com

(편집자주)

지난해 11월 '2025학년도 학생자치기구 총선거'에서 선출된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가 임기의 반환점을 돌고 있다. 중운위의 공약 진척 속도는 어떨까. 본지는 공식인 동아리연합회를 제외한 ▲총학생회(이하 총학) ▲총대의원회(이하 총대) ▲학생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를 만나 공약 이행 현황과 앞으로의 공약 이행 계획 등에 대해 질문했다. 종합적으로 중운위의 공약 중 이행 불가한 공약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공약이 2학기 에 이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중운위의 공약 이행 현황을 상세히 알아보기 위해 공약 이행 정도를 ▲이행 완료 ▲이행 중 ▲이행 예정 등 3가지 기준으로 분류했다.

김혜윤 기자 purple.pea06@gmail.com
임지민 기자 seeshuron@naver.com
조수윤 기자 wateryun77@naver.com

절반 도달한 중운위 임기, 완성을 향해



사진 : 이승희 기자

▲이영재 총학생회장



사진 : 박석희 기자

▲이연준 총대의장



사진 : 이승희 기자

▲김재민 학생복지위원장

총학생회 'WE:RO' 정상으로 가는 길을 만든다

총학 'WE:RO'의 공약은 ▲금연구역 캠페인 ▲복학예정자 총선거 투표권 ▲국가근로 장학생 선정 기준 강화 ▲무료 법률 상담 진행 ▲학업 환경 조성 ▲한성 아이디어 경진대회 ▲소모임 개편 확대 ▲예비군 학업권 보장 ▲찾아가는 총학생회 ▲총학생회 월별 달력 제작 ▲단과대학 연합 체육대회 ▲한성마라톤 등이다. 현재 총학의 공약 이행 상태는 이행 중 7건, 이행 예정 5건이다. 이행 중인 공약은 ▲금연구역 캠페인 ▲무료 법률 상담 진행 ▲학업 환경 조성 ▲소모임 개편 확대 ▲찾아가는 총학생회 ▲총학생회 월별 달력 제작 ▲한성마라톤 등이다. '금연구역 캠페인' 공약은 매달 3회 이상 진행하고 있으며, 2학기에도 이행된다. 공약에 포함된 휴연 규정 강화는 단속을 통한 벌금 부과 방식을 택할 계획이다. 재학생이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돕는 '무료 법률 상담 진행' 공약은 1학기에 이행됐으며, 2학기에도 시행된다. 더불어 '학업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중간·기말고사 기간 각각 상상베이스와 상상파크를 24시간 개방하고 상주인원을 배치했다. 이는 2학기에도 실시된다. 지원금 분배 방식을 조정해 더 많은 소모임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소모임 개편 확대' 공약도 이뤄졌다. 소모임은 '한성크루'로 명명돼 2학기에도 동일한 형태로 지속되며,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는다. '찾아가는 총학생회' 공약 중 '찾아가는 총학생회 부스 운영'은 2차례 진행됐다. 분기별 피드백 진행'은 익명 편지함의 방식으로 대체됐다. 총학 공식 SNS에 총학 활동을 달력 형태로 게시하는 '총학생회 월별 달력 제작' 공약도 이행 중에

있다. 이영재(사회과학 3)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비 사용처 등이 변동될 수 있어 추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북구 육상연맹과 협업해 공동 주최하는 '한성 마라톤'은 지난 11일 개최됐으며 2학기에도 진행 예정이다. ▲복학예정자 총선거 투표권 ▲국가근로 장학생 선정 기준 강화 ▲한성 아이디어 경진대회 ▲예비군 학업권 보장 ▲단과대학 연합 체육대회 등의 공약은 이행 예정 이다. 총선거에서 차기 연도 복학 예정 학생에게 투표권을 제공하는 '복학예정자 총선거 투표권' 공약은 총대와 협의 중이다. 이 회장은 "학적 상의 문제로 인해 공약이 미 이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근로 장학생 선정 기준 강화' 공약의 세부 사항으로는 '면접 점수 기준표'와 '최종 합불 여부 공지'가 있다. 이 회장은 "학생자학팀과 논의한 결과 '면접 점수 기준표' 공개와 '최종 합불 여부 공지'는 협의가 됐지만, 면접 평가 점수 공개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본교를 주제로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한성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오는 9월 예선 및 본선을 개최할 계획이다. '학생 예비군 필기자료 공유'와 '학생 예비군 수업자료 제공'은 '예비군 학업권 보장' 공약에 포함된 사업이다. 이 회장은 "지원 받은 필기자료의 질이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공약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 중"이라고 드러냈다. 이를 동안 진행되는 '단과대학 연합 체육대회' 공약은 9월 개최를 계획 중에 있다. 이 회장은 "공약을 더욱 보완해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총대의원회 '청월' 학생자치를 비추다

총대 '청월'은 지난 총선거에서 ▲단과대학별 학생회칙 제정 ▲상임위원 개편 ▲월간지 홍보 및 활성화 ▲대의원 인식 개선 및 참여율 증진 ▲선거 교육 시행 ▲감사위원회 감사 매뉴얼 제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재까지 총대의 공약 이행 상태는 이행 중 5건, 이행 예정 1건이다. ▲단과대학별 학생회칙 제정 ▲상임위원 개편 ▲대의원 인식 개선 및 참여율 증진 ▲선거 교육 시행 ▲감사위원회 감사 매뉴얼 제정 공약 등은 이행 중이다. '단과대학별 학생회칙 제정' 공약을 위해 총대는 학생회칙 제정사항을 반영한 예시집을 제작해 지난 2월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에게 전달했다. 학생회칙은 당초 2025학년도 상반기 2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었으나, 재선거 당일 학생자치기구의 예산안 심의로 지연됐다. 이연준(컴공 4) 총대의장은 "1학기 내에 임시총회를 열어 제정할 계획이나, 개회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2학기에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총대는 '상임위원 개편' 공약의 이행을 위해 상임위원 장학금 상황과 선출방식 일부를 개편했다. 장학금은 1학기 상임위원 모집 시기에 맞춰 월 5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본래 총대가 제시했던 선출방식은 상임위원의 공개모집을 중지하고, 대의원 중 상임위원을 투표·선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해당 방식을 적용하면, 대의원이 상임위원으로 전환되며 대의원 인원 손실이 발생한다. 때문에 기존 계획을 변경해 상임위원을 공개 모집하되 동일 직책에 복수 지원자 발생 시 투표를 통해 선발하는 형식을 채택했다. 이 의장은 "당초 계획했던 모집방식 전환에 있어 절충점을 찾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대의원 인식 개선 및 참여율 증진' 공약의 세부 항목에는 ▲월간 보고서 및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홍보 ▲대의원 설명회 진행 및 역할지침서 배포 ▲대의원 모집 부스 운영이 포함된다. 총대는 1학기 대의원 모집에 맞춰 대의원 홍보 메시지를 발송했으며, 대의원 모집 부스도 운영했다. 대의원 설명회와 역할지침서는 2025학년도 상반기 1차 정기 대의원총회 때 일괄 실시·배포했다. 이는 2학기 대의원 모집 시기에 맞춰 총대 공식 SNS 에도 게시된다. 이 의장은 "대의원 역할지침서와 설명회 자료는 최종 수정 과정을 거친 뒤 게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선거 교육 시행' 공약은 지난 3월 실시된 재선거에서 선거 일정과 서류작성 방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학생자치기구장으로 출마하는 임원뿐 아니라 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일반 학생도 들을 수 있었으며, 2026학년도 학생자치기구 총선거 시 재차 이행될 예정이다. '감사위원회 감사 매뉴얼 제정' 공약의 경우, 감사 매뉴얼의 재정립을 마친 상태다. 제정된 감사 매뉴얼은 2025학년도 상반기 감사 기간 전에 공고할 예정이다. 이 의장은 "제정된 감사 매뉴얼에 징계 관련 사항이 포함됨에 따라 감사 과정 중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공고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행 예정인 공약은 '월간지 홍보 및 활성화'이다. 해당 공약은 2학기에 이행될 전망이다. 이 의장은 "1학기 종료 후 상반기 총대의 활동 전반을 검토한 뒤 월간지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총대의 공약 이행 전반에 대해 이 의장은 "제·개정을 요구하는 공약이 많아 점진적으로 실시 중"이라며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해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학생복지위원회 '여운' 복지의 손길을 내밀다

학복위 '여운'은 지난 총선거에서 ▲보조배터리 업체 제휴 ▲대동제 재학생존 보완 ▲학생 예비군 버스 대절 사업 ▲공동구매사업 추진 ▲학식당 메뉴 신설 행사 ▲제휴업체 유지 및 확대 ▲플리마켓 행사 진행 ▲간식사업 품목 변경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재까지 공약 이행 상태는 이행 완료 2건, 이행 중 2건, 이행 예정 4건이다. 이행 완료된 공약은 '대동제 재학생존 보완'과 '학생 예비군 버스 대절 사업' 공약으로 인해 총학생회비를 낸 학생은 4시 40분부터 입장 가능했고, 납부를 하지 않은 학생들은 6시 10분부터 입장하도록 조치했다. 김재민(산공 4) 정위원장은 "뒷거래나 양도의 위험이 있는 팔찌 대신 확인 도장 방식을 활용했다"고 전했다. '학생 예비군 버스 대절 사업' 공약은 버스 2대를 대여해 운영됐다. 간식이 함께 제공될 예정이었으나, 버스 수요를 고려해 간식 대신 버스 한 대를 추가하며 총 2대를 대여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이행 중인 공약은 '학식당 메뉴 신설 행사'와 '간식사업 품목 변경'이다. 학복위는 지난 3월 학생식당과의 협의를 통해 2주 간격으로 신메뉴를 출시하는 '학식당 메뉴 신설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학생들의 투표를 통해 신메뉴 출시 후 한 학기 동안 유지하려 했으나, 학생식당 사정상 같은 메뉴를 오래 유지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간식사업 품목 변경' 공약은 지난 3월 5일부터 11일까지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품목으로 상품 일부를 교체하는 방안으로 이행 중이다. 2학기에도 설문조사를 통해 품목이 결정된다. 김 위원장은

"설문조사 결과 점심 간식사업 품목이 전과 같은 맘스터치 싸이버거로 선정됐다"며 "저녁 간식사업 품목은 이삭토스트 햄치즈토스트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이행 예정인 공약은 ▲보조배터리 업체 제휴 ▲공동구매사업 추진 ▲제휴업체 유지 및 확대 ▲플리마켓 행사 진행이다. '보조배터리 업체 제휴' 공약은 보조배터리 업체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대학본부와의 협력이 필요해 2학기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1학기에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며 대학본부와의 협력이 지연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공동구매사업 추진' 공약은 생필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기숙사생·지취생 등을 위함이다. 당초 3-4월에 사업이 예정됐으나, 업체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2학기에 시행된다. 김 위원장은 "값싸고 좋은 물품을 판매하는 업체를 선정하고자 사업이 미뤄졌다"며 "업체 선정 및 논의는 완료됐다"고 밝혔다. 자격증 및 계절 맞춤 제휴를 실시하는 '제휴업체 유지 및 확대' 공약도 업체 지정이 지체돼 순차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자격증 관련 제휴는 업체 선정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계절별 제휴는 진행 예정"이라고 말했다. '플리마켓 행사 진행' 공약은 불확실한 일정 등으로 인해 진행하지 않았다. 다만 돌아오는 2학기 동아리 박람회의 개최 여부 등을 고려해 일정이 확정된다. 김 위원장은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여운의 공약 이행 및 활동 전반과 관련해 "현재까지 이행 불가능한 공약은 없으며 남은 공약들도 학생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획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현실에 짓눌린 꿈의 배낭

〈편집자주〉

해외에서 일과 쉼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마치 꿈같은 제도가 있다. 바로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이하 워홀)다. 워홀은 협정을 맺은 국가의 청년이 방문국에서 일정 기간 자유롭게 거주하며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워홀은 1990년대부터 청년의 해외 문화 체험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최근에는 정부가 해외 취업을 장려하며 참여 연령 확대와 협정국 추가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호응한 듯 청년 사이에서도 워홀이 해외 취업의 디딤돌이자 '필수 방학 코스'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워홀 참여 확대에만 집중하는 사이 청년의 안전은 소홀히 다루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워홀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긍정적인 면을 부각해 홍보할 뿐 정작 제도적으로 이들을 보호하거나 구제할 방안은 마련되지 않는 실정이다. 해외 출국 전후로 방치된 청년의 현실과 그에 따른 지원 방안을 함께 살펴본다.

이승희 기자 sun2sideup03@naver.com

임지민 기자 seeshuron@naver.com

워홀은 협정 체결 국가의 청년이 방문국에서 자유롭게 취업, 여행, 어학연수 등을 수행하며 구직 활동이 가능하도록 특별히 허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호주를 시작으로 현재 캐나다, 독일, 일본, 홍콩 등 27개 국가 및 지역과 워홀 협정을 맺고 있다. 박한진(소유유학컨설팅) 대표이사는 "워홀 협정을 통해 워홀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며 "해당 비자는 워홀 체류기간 중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며 정규 학업 이수 가능한 유학 비자와 차이점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오랜 시간 이뤄져 온 워홀은 초기 정책 목적과 달라진 형태를 보인다. 도입 당시에는 청년의 문화 체험 및 교류를 장려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청년 실업률 증가에 따라 점차 해외 취업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워홀을 통한 청년 해외 취업 프로그램 등도 지원되는 상황이다. 박 대표이사는 "워홀 초기에는 세계화를 통한 문화 경험에 목적이 있었으나, 점차 정부가 워홀의 정책 목적을 청년 취업을 제고로 설정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에게 워홀을 적극 권장·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많은 청년이 워홀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들을 겨냥한 사기 등 각종 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민석(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호주에서 발생한 워홀 관련 사건·사고는 101건에 달했다. 동일 기관의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확보한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호주 내 워홀러 사건·사고는 213건으로 집계됐다. 호주는 워홀 협정 체결 국가 중 워홀에 참여한 청년의 약 80%가 선택하는 대표적인 목적지다."

해외로 떠난 이후 워홀 국가에서 피해를 입은 사례가 다수 존재하지만, 워홀 출국 전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극히 단편적이다. 현재 정부는 '재외국민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이하 인포센터)' 플랫폼을 통해 워홀 관련 공지사항과 체류 수기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플랫폼은 정부가 운영하는 유일한 공식 정보 창구지만, K-pop 콘서트 개최 소식 등 피상적인 내용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청년은 사설 카페 등 사적인 방안을 통해 위험 요소나 현지 제도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한다. 공주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이수진 학생은 "워홀 청년은 일을 하기에 방문 국가의 제도나 법의 정보를 얻어야 하지만,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어 카페나 모임 등을 통해 정보를 얻었다"며 경험을 전했다.

정보가 극히 제한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연계한 일자리에서도 취업 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해외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월드잡플러스(WORLJOB+)' 플랫폼을 통해 직무 내용, 근로 조건 등이 포함된 해외 채용 정보를 제공한다. 이때 구인처에 대한 사전 검증이 미흡하거나 실제 근무 환경과 다른 정보가 게시되며 피해가 이어지는 실정이다. 국민대학교 빅데이터경제학융합전공 3학년에 재학 중인 양지은 학생은 "뉴질랜드로 워홀을 갔을 때 만난 사람이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일자리를 구했으나 사기를 당했다"며 "이후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답했다.

워홀에 참여한 청년에게 출국 전후로 부실한 지원이 포착될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가셔도 청년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재외국민을 지원하는 재외동포청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하 영사조력법) 제12조에 따라 워홀 청년의 피해 구제를 도와야 한다. 이때 정부는 변호사 및 통역인 명단과 같은 정보 제공 의무를 지닌다. 하지만 청년의 피해를 확실하게 구제하기 어려울뿐더러 명단이 미갱신돼 연락할 수 없는 경우도 속출하는 상황이다. 박기태(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는 "영사조력법을 통해 국가가 재외국민을 지원할 의무가 있으나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워홀의 사전 교육과 사후 지원을 담당할 재외공관의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

는 지적도 나타난다. 한국재난정보학회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171개 재외공관 중 재외국민 보호를 전담하는 해외안전담당 영사가 파견된 곳은 전체의 4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연구자료에서는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외교부의 「2025년도 예산 개요」에 따르면 재외공관 관련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60%가량 감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변호사는 "재외공관의 인력과 예산이 충분되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정보 제공이 한정적인 이유는 정책의 초점이 청년 일자리 알선과 워홀 제도 홍보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워홀 협약 국가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각국과 외교적 협력 방향을 조율한다. 이때 청년의 워홀 참여율이 높을수록 상호 이해관계가 강화되기 때문에 정부는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다. 박 대표이사는 "워홀은 취업률, 국가 간 협약 등 다양한 요소가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취업 사기 문제는 정부의 기업 정보 검증 불충분에서 기인한다. 월드잡플러스는 해외 취업과 관련해 가장 크고 공신력 있게 운영되는 플랫폼으로 해외 기업에 대한 정보를 망라하고 있다. 이에 기업의 규모 대비 적정 임금 수준 등 공고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검증 절차가 생략되며 취업 사기 문제가 발생한 실정이다. 박 대표이사는 "해외 취업을 위해 방대한 정보를 단순 나열식으로 제공하면서 청년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영사조력법이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지나치게 모호하게 규정하며 워홀 청년을 구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타난다. 상술한 법령에 따라 재외공관은 의료기관, 변호사 및 통역인 명단 등의 조력 외에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조력을 제공할 것을 명시한다. 이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농후하며 해외에서 긴급하게

이뤄지는 사건·사고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박 변호사는 "영사조력법이 재외국민 보호의 기본 틀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조항이 모호해 실질적인 조력을 받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워홀 지원 인력 및 예산 부족 문제는 2021년 영사조력법 개정 이후 재외공관 운영 계획이 미흡했던 데에서 비롯된다. 개정된 법은 재외국민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위기 대응을 포함한 공관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워홀 참가자처럼 현지에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국민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뒤따르지 않았다. 그 결과, 지원 수준은 여전히 개정 이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박 변호사는 "영사조력법이 2021년 처음 시행되고 그동안 재외국민 보호의 근거가 되는 체계적인 근거법령 및 가이드라인이 없었다"고 역설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워홀 관련 플랫폼에서 안전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해결방안이 제기된다. 현재 대사관과 각국 재외공관을 통해 워홀 중 발생한 사건·사고 사례와 피해 현황이 수집되고 있다. 이를 종합해 안내하면 청년의 안전한 해외 체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박 대표이사는 "정부가 제공하는 공신력 있는 플랫폼을 통해 종합된 정보는 워홀 안전 예방에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해외 취업 과정 중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 운영 이력 검증 의무화 및 정보 비교·분석 자동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구인 공고를 낸 해외 기업이 실제로 각국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기업 신뢰도 평가 지표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이다. 또한 과거 플랫폼에 등록된 기업 정보가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최신 현황을 자동 분석하는 체계다. 이경재(법무법인 TWC

Lawyers) 변호사는 "워홀 협정 체결 국가의 협조가 이뤄진다면 기업별 신뢰도 평가 시스템 등의 해결책이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영사조력법에 세부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워홀에서 발생하는 임금 체불, 주거 사기 등의 사건·사고는 유형화된 형태를 보이는 만큼 피해 유형에 따른 조력 방식과 기준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나중에 갚게 하는 등의 방식을 택할 경우 현실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제시된다. 이 학생은 "워홀 국가에서는 거주지가 갑작스럽게 사라지며 피해가 심화될 수 있다"며 "워홀 청년에게 긴급 거주지 지원 등의 보호책이 마련된다면 효과적인 구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부 차원의 업무 계획을 세운 후 재외공관 인력 및 예산 확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방안이 거론된다. 당시 법령이 전면 개정된 후 총원되어야 할 인력과 예산의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로 방치됐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재외국민 보호가 매우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알리고 이에 따라 충분한 예산과 인력 등이 배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하나의 게임을 넘어, 하나의 나를 완성하다

게임 필로소마 개발자 박기범 학생

누구나 마음속에 품어둔 일을 한 번쯤 세상에 꺼내 펼쳐보고 싶지 않을까. 대학 생활 속에서 그 꿈의 첫걸음을 내딛는다면, 졸업 이후에는 거침없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 어갈 수 있을 테다.

여기 대학 생활 중 자신이 갖고 있던 열망을 현실로 만들어낸 이가 있다. 바로 팀 '인정협회'의 박기범(CT 5) 학생이 그 주인공 중 하나다. 그는 여느 또래처럼 진로와 미래에 대한 고민 속에서 대학 생활을 보내왔다. 그러나 졸업을 앞두고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에 몰두해 의미 있는 결과를 내고 싶다는 다짐 끝에 게임 개발에 도전했다. 그 경험은 단순한 프로젝트를 넘어, 게임 개발자를 자신의 진로로 삼는 계기가 됐다. 뿐만 아니라 팀 프로젝트로 탄생한 게임 '필로소마'는 국내 굴지의 게임 서비스 플랫폼 'STOVE 스토어'에 정식 출시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기자가 본 그는 미래에 대해 말할 때 유독 또렷한 눈빛을 지닌 사람이었다. 대학생이라는 틀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고 모든 열정과 노력을 학내 활동에 쏟아부으며 가능성을 넓혀갔다. 안 되면 그만, 잘되면 대박. 그가 말하는 대학생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그는 이 특권을 발판 삼아 실제 경험을 쌓고 진로라는 구체적인 방향을 세워 나갔다. 그렇다면 남은 대학 생활에서 개인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성장은 무엇 일까. 지금부터 박 학생이 좋아하는 일을 극대화시켜 진로를 설정한 비결에 귀 기울여 보자.

이승희 기자 sun2sideup03@naver.com



사진 : 김혜윤 기자

사진 제공 : 박기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박 학생은 현재 본교에서 영상·애니메이션 디자인트랙과 게임그래픽디자인트랙을 전공하고 있다. 그는 편입생으로, 전적대에서는 실내디자인을 전공했다. 여느 학생과 같이 성적에 맞춰 전공을 택하다보니 적성에 맞지 않는 상황이었다. 진로에 대한 고민은 한층 깊어졌고 끝내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분야로 방향을 전환했다.

“전적대 재학 시절 친구들과 작업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과제물에 대한 감상이 오갔어요. 저는 그 대화에 쉽게 공감하지 못했죠. 흥미 없는 전공에 머무르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에 진심으로 끌리는 분야로 전공을 선택하고자 편입을 결심했죠.”

편입 이후 그는 본교 게임 개발 동아리 'Team ODD'에서 게임 디자인 활동에 참여했다. 간단한 게임 삽화를 그리는 등의 경험을 쌓았다. 그러던 2023년 동아리 내 친분이 두터운 부원들과 함께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오갔다. 졸업을 앞두고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싶다는 공통된 열망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그리하여 박 학생과 박성찬(컴공 20), 홍기표(컴공 19), 하준원(콘디칼 19) 학생들은 게임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편입 후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동아리 활동을 하며 친해진 친구 중 한 명이 3D 그래픽을 공부하고 있었고, 또 다른 친구는 프로그래밍에 능했어요. 자연스럽게 졸업 전에 ‘맛있는 거 하나 만들어 보자’는 얘기가 나왔죠.”

원대한 포부일지라도 현실 앞에서 계획은 흐지부지되기 마련이다. 이들의 게임 개발 계획도 유야무야되며 좀처럼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던 중 박기범 학생은

돌연 친구들에게 구상한 아이디어를 졸업 전시로 선보이자고 강력히 제안했다. 막연히 그려왔던 구상을 구체적인 결과물로 만들어보고 싶다는 의지에서도.

“저희가 모두 좋아하는 게임 장르인 소울라이크*로 게임을 구현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이행은 없었죠. 제가 4학년이 되면서 제대로 제작하고 싶다는 욕심이 강해졌어요. 억지로라도 추진하지 않으면 구상만 하다가 졸업할 것 같더라고요. 교수님께 졸업 전시 과제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뒤를 생각하지 않고 일단 해보자는 나름의 각오를 다지고 본격적인 개발을 준비하고자 했죠.”

실패도 자산이 되는 개발의 시간

이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할 팀 '인정협회'가 탄생하며 게임 개발의 서막이 열렸다. 인정협회는 게임의 세계관과 목표 등 세부 계획을 실행으로 옮겼다. 이는 하승완(한성대학교 ICT디자인학부) 교수의 도움을 받아 2024 산학협력 공동프로젝트(이하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부터다. 프로젝트는 교수·학생·기업 등으로 구성된 팀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 사업이다.

“저는 게임의 컨셉 디자인과 3D 모션, 효과음을 맡았고, 박성찬 팀원은 레벨 디자인과 기획 전반을 총괄했어요. 하준원 팀원은 3D 모델링을, 홍기표 팀원은 프로그래밍 전반을 담당했죠. 팀명 인정협회는 소울라이크 장르 게임 이용자가 실력으로 난관을 돌파한 플레이어를 ‘인정’하는 미에서 착안했어요. 이름처럼 인정받는 멋진 게임을 만들고 싶었죠. 초기엔 웅장한 그래픽을 갖는 정통 소울라이크 구현을 목표로 삼고 공모전 출품도 계획하며 개발을 이어갔어요.”



▲박 학생이 디자인한 게임 필로소마의 캐릭터

그러나 대학생의 역량만으로 고난도의 게임을 개발하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 이들은 구현 과정에서 수많은 기술적 난관에 직면했다. 웅장한 배경의 구성부터 캐릭터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개발 과정은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요구했다.

“게임을 완성도 높게 만들고자 애썼지만, 구현 과정에서 수많은 한계에 부딪혔어요. 처음엔 신화적 요소를 결합한 세계관을 구상했어요.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했죠. 배경이나 몬스터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했어요. 무엇보다 작업물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점이 큰 어려움으로 작용했죠.”

이에 인정협회는 게임의 차별성을 모색하는 한편, 팀원 각자의 역량에 부합하도록 기획 방향을 일부 조정했다. 세계관과 콘셉트는 비교적 단순하게 설정하되, 복잡한 서사보다는 속도감 있게 임무를 달성해 나가는 구성으로 전환한 것이다.

“비교적 단순한 콘셉트로 방향을 틀어 웅장한 음악 대신 록 장르의 음악을 삽입했어요. 시원하게 게임의 전투 단계를 돌파하는 형식으로 변경한 거죠. 몬스터는 해골을 기본으로 설정했지만 찢어진 옷 등의 요소를 입혀 전체 분위기와 조화를 시도했어요. 기본 형태에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도록 사고를 바꾼 거예요.”

더불어 그는 인터넷 자료와 외부 자원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곧바로 실전에 적용했다. 개발 과정에서 특정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그야말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각자의 역량을 극대화하려

는 노력이었다.

“저는 처음에 컨셉 디자인만을 담당했지만, 게임의 3D 모션을 구현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공부해 보겠다고 했죠. 제가 2D 캐릭터 원화를 그리면 하 팀원이 3D로 변환하고 함께 게임을 구현하는 유니티 엔진에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처음에는 모션 구현은 물론이고 엔진 사용방법조차 알지 못했어요. 인터넷에서 하나하나 찾아가며 틀 사용법을 익혔고 소울라이크 기반의 게임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며 이를 적용하고자 했어요. 팀원 모두가 각자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기술을 새롭게 익혔죠. 수차례 시행착오를 거쳐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화면이 완성됐어요.”

그 결과 2024년 게임 '필로소마'가 개발됐다. 현실과 지옥이 뒤얽힌 공간에서 적을 처치하며 성체의 꼭대기에 도달해야 하는 세계관과 그에 맞는 게임 그래픽이 구현됐다. 게임 관련 공모전과 박람회에도 참가하며 성과를 보일 수 있었다. 올해 4월경 국내에서 손꼽히는 게임 서비스 플랫폼 STOVE 스토어에 정식 출시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 저의 졸업 전시가 마무리되면서 게임 제작 프로젝트가 완전히 종료됐어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GIGDC, 버닝비버와 같은 게임 관련 박람회·공모전에도 참여했죠. 짧은 기간 내에 높은 난이도의 게임을 잘 구현했기 때문에 게임 서비스 플랫폼에 정식으로 출시하기도 했어요.”

'시도'라는 씨앗에서 싹튼 진로의 방향

박기범 학생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시도'의 힘을 체감했다. 이를 계기로 졸업을

앞두고 동일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인디게임 개발 과정은 강의실 너머의 실전 경험이었으며, 사용자가 게임을 즐기는 순간에서 깊은 보람을 느꼈다. 그는 취업보다는 인디게임 개발자의 길을 고민하고 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전에는 일반 기업에 취업하는 방향을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필로소마를 개발하면서 제 역량이 크게 향상됐어요. 또 개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성장할 때의 즐거움을 체감했죠. 특히 원하는 대로 구현해 보고, 그걸 재미있게 즐기는 사용자들을 보며 큰 만족감을 느꼈어요. 졸업 후에도 인디게임 개발을 계속하고 싶다는 확신이 생겼고요. 잘되면 인디게임 개발 회사 창업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가장 큰 결실로 '성장'을 꼽는다. 흔히 학내에서 진행되는 팀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단순한 과제 수행에 그치지 않고, 각자의 목표가 맞물리며 상호 보완적 협력이 가능했다. 이를 통해 개인적 성장이 견인됐다는 설명이다.

“보통 팀 프로젝트는 무사히 제출하는데에만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번 프로젝트는 팀원 모두가 자신만의 결과물을 만들고 싶어 했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완성해 나갈 수 있었어요. 또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단순한 지식이 아닌, 응용력과 유연한 사고를 기를 수 있었어요.”

나아가 그는 학생들에게 학내외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시도할 것을 권했다. 단기적인 성과가 눈에 띄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가 결국 자기 이해를 높이고 역량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를 통해 진로와 목표가 구체화되고, 나아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도 명확히 깨달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학생을 위한 학내외 프로젝트는 가볍게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임에도 많은 학생이 괜히 지원 자체를 어렵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뭔가 대단한 성과를 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부담 때문에 시도하지 못했거든요. 안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해보니 다양한 경험이 쌓이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좋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진로를 구체화하거나 방향을 전환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하니까요.”

*소울라이크 : 다크 판타지 세계관을 배경으로 높은 난이도, 연속된 전투 단계 등이 특징인 게임 장르



▲팀 인정협회가 작업실에 모여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박기범

제19회 사진공모전

최우수



청춘 김이범(문론 3)
물 위의 징검다리를 건너는 두 사람의 실루엣은 불확실함으로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발을 내딛는 모두의 청춘을 표현했다.

최우수작 수상소감

성장

어느 날, 문득 날이 좋아져 발길이 닿는 대로 걷다보니 저물어 가는 해와 함께 청계천 다리 위에 서게 됐습니다.
도시의 틈 사이로 스며드는 석양, 햇빛을 따라 흐르는 물길 위에 놓인 징검다리, 그 위를 조심스레 건너는 두 사람.
저는 그 모습이 제법 청춘과 닮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불확실한 내일 앞에서 조심스럽게 걸음 내딛는, 그럼에도 멈추지 않고 정진하는 우리들의 청춘을요. 저는 그 순간을 담아 이 사진에 《청춘》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징검다리를 건너듯, 각자의 시간과 상황 속에서 불안하고 조심스럽게 삶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물에 빠질까 두려워 망설이기도 하고, 다음 돌이 너무나 멀게 느껴져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없어 멈춰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내고 한 걸음 내디뎠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음 돌에 닿을 수 있습니다. 청춘도 그런 걸음의 용기를 반복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진 속 두 사람은 같은 다리를 나란히 건너고 있습니다. 우리의 징검다리 위에도 앞서 건너며 “안전하다” 위로하는 사람이 있기에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뒤에서 내 걸음을 따라오는 사람이 있기에 제 발자국을 보다 가지 않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이 그런 우리의 걸음을 담고 있기에, 사진을 보는 누군가의 청춘을 응원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 사진이 한성대 학우들의 청춘에 닿게 기회를 주신 한성대신문사 관계자 분들께 감사 드리며, 청춘을 건너는 모든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공감으로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가작 수상소감

우연이 깃든 자리

여행은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를 많은 고민에 빠뜨립니다. 가서 어떤 옷을 입을지, 신라면은 몇 개를 챙길지, 인천공항행 버스는 어떤 시간대의 것을 탈지 등 하나부터 열까지 선택의 연속이지만 웬지 모르게 입가에는 열은 웃음을 띠고 있습니다. 이국적인 곳으로 가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은 언제나 매력적이고 설레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설레는 마음으로 개강 전, 저는 2월에 홍콩으로 떠났습니다.
2월의 한국은 너무나도 춥습니다. 늘 그렇듯이 뉴스에서는 역대급 한파다 라고 하며 옷을 따뜻하게 입으라고 일러주었고, 밖에 나갈 때마다 귀가 베이는 듯한 추위를 느꼈습니다. 그런 서울의 차가운 공기를 마시다 4시간 동안 바다를 건너니, 제 마음에는 따뜻한 공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런 홍콩의 날씨는 한국에서는 5월이나 돼야 느낄 수 있는데, 남들보다 3개월 먼저 따뜻한 날씨를 만끽한 저는 소박한 우월감에 빠졌습니다.
2월의 홍콩은 숙소에 짐을 풀고 동네 구경을 하다 우연히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이렇게 여행을 가면 현지인이 사는 동네를 산책하며 구경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특별하고 멋진 랜드마크를 돌아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흥미로운 일이지만, 현지인들의 소박한 생활 양식을 엿보는 것은 언제나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 왔으면 여기는 무조건 가봐야 돼” “여기 왔으면 이 집은 무조건 가봐야 돼” 라는 압박이 우리를 피곤하게 할 때가 있고 또 너무 기대한 나머지 실망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들어간 음식점에서 만족스러운 식사를 했을 때, 산책을 하다 우연히 근사한 정원을 발견했을 때 등등 우리는 계획된 것보다 우연이라는 상황이 성공적일 때, 더 열광하고 가지 있게 받아들입니다. 2월의 홍콩도 마찬가지로 길을 걷던 도중 우연히 발견한 모습을 담은 것이고 또 우연히 택시가 지나가준 덕에 멋진 사진으로 남았습니다. 그렇기에 저에게는 이 작품이 더욱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살도 여행처럼 모든 걸 계획대로 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그런 우연 속에서 더 큰 감동과 의미를 발견하곤 합니다. 2월의 홍콩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장면이 오히려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고, 그 순간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었습니다. 이 사진이 누군가에게 잠시나마 따뜻한 공기처럼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공모전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일상 속 작은 우연한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고 담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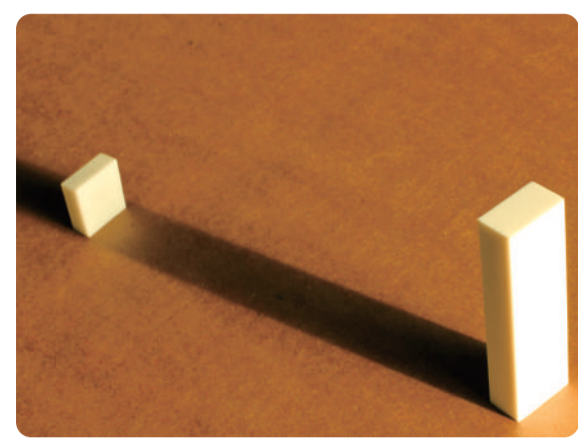
2월의 홍콩 김자선(사회과학 2)
2월의 한파를 피해 우리는 잠깐 홍콩으로 도망을 왔다. 가깝지만 이국적인 설렘과 따뜻함을 담은 사진.

가작

이쉬운 작품들



해질녘 도쿄의 지하철 문정민(인문 3)
2024년 가을, 도쿄여행을 갔을 때 지하철을 놓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노을 진 하늘이 너무 예뻐서 시간을 날린 것에 대한 후회보다 사진으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일본 승강장은 우리나라와 달리 스크린도어 설치가 안 돼있어서 내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노을 진 하늘과 지하철, 그리고 줄 서있는 사람들로부터 “일상의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늘과 선로의 대형 구조 역시 보는 이에게 안정감을 주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등뒤 나석환(사회과학 4)
작은 지우개와 큰 지우개, 그리고 그 사이를 잇는 그림자, 하루 동안의 빛의 흐름을 따라 그림자가 커지고, 작아지며 아버지의 그림자가 나를 감싸는 순간을 담았다. 지우개는 닳아 없어지는 존재지만 그 닳음은 누군가를 지켜내기 위한 희생의 증표이기도 하다.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곁에 있는 아버지의 그림자를 통해 보호받으며 성장하는 나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해안가 조성재(사회과학 3)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 아닌, 한적하지만 본연의 느낌이 있는 한적한 마을의 해안가입니다. 해안가를 따라 조곤조곤 대화하며 걸어가던 당시의 기억이 떠오르게 되는 사진입니다.



해마 이준원(매선 4)
나의 해마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는 기억들을 떠올릴 때면, 마치 길고 어두운 통로를 천천히 걸어가 그 끝에서 비로소 그 기억과 마주하는 기분이 든다.



망가진 시계, 멍춘 이야기 민찬변(사회과학 1)
흐르지 않는 시간은 고여서 다른 이야기를 불러모른다. 망가진 시계는 이제 움직이지 않고, 쓰여진 이야기는 책으로 남아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공릉점이 눈에 띄어 담아냄.

심사평



심사위원 **강동영**
(한국사진작가협회 본부이사)

약력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본부이사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청년부와위원회 부위원장
- 호국미술대전 운영위원
- 경찰사진대전 심사위원
- 행정안전부 재난사진공모전 심사위원

빛으로 엮어낸 서사, 프레임 속의 삶을 말하다

제19회를 맞이한 이번 사진공모전은 ‘빛의 조각이 엮어낸 순간의 서사’라는 주제로 단순한 풍경이나 피사체의 재현을 넘어 서사적 내러티브를 담은 사진 작품도 많이 출품됐습니다. 출품작들 다수는 주제 의식에 충실하며, 빛이라는 사진 예술의 본질적 요소를 서사의 심마리로 삼아 각각의 시선과 이야기로 표현해낸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번 공모는 특히 분교 재학생들의 삶의 감각과 창작 역량을 확인할 좋은 기회였으며, 수상작 선정에 있어 주제 적합성, 참의성, 기술적 완성도, 시각적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김이범 작가의 『청춘』’은 사진이라는 평면 위에 활니의 서사를 입체적으로 구성해낸 작품으로, 도시 하천 위 징검다리를 건너는 두 인물의 실루엣은 관객이 저마다의 기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정서적 여운을 남깁니다. 인물들은 서로를 향해 다가가는가? 혹은 스쳐 지나가는가? 이러한 질문이 보는이에게 남겨지며, 작품은 단순한 순간 포착을 넘어 서사적 상상력을 유도합니다.
프레임 구성은 중앙에 빛을 집중시키고 양측을

어둠으로 감싸며 시선을 자연스럽게 인물에게로 유도해, 배경으로 펼쳐진 석양빛의 수면은 시적 분위기를 극대화하며, 색온도의 따스함은 젊음의 온도처럼 느껴집니다. 빛의 방향성과 그림자의 위치, 주변부의 미묘한 질감까지 세밀하게 조율된 이 사진은, 카메라가 단지 현실을 담는 기계가 아니라 정서를 투영하는 예술 도구임을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주제와의 부합도 측면에서나 창작자의 의도적 개입이 효과적으로 드러난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가작으로 선정된 ‘김지섭 작가의 『2월의 홍콩』’은 그 자체로 훌륭한 도시 기록이자 인간의 삶을 읽어내는 사회적 사진이 담긴 작품으로 홍콩의 전통적 건물, 세탁물이 걸린 발코니, 거리의 택시와 상점, 그리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교차하는 장면은 아무렇게나 배열된 듯 보이지만 치밀한 구도 감각과 색채 조정을 통해 도시의 밀도를 가시화합니다.
특히 붉은 택시와 거리의 이정표, 그리고 인파의 흐름이 만든 동세는, 정지된 한 컷 속에서도 도시의 생동감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오후의 따스한 빛을 받아 물결치듯 흔들리는 건물 그림자와

따뜻한 색조는 ‘2월’이라는 계절감을 극적으로 살려내며, 관람자에게 홍콩이라는 도시가 지닌 독특한 정서를 간접 경험하게 만듭니다. 순간을 멈추고 바라본 도시의 감각이 주제의 ‘빛’과 ‘서사’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조용히 말해주는, 매우 성숙한 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총평으로, 두 작품 모두 사진이 가진 기록성과 예술성을 조화롭게 구현했으며, 김이범 학생은 삶의 서사를 시작으로 엮어내며 감각의 깊이를 보여주었고, 김지섭 학생은 도시의 층위를 읽어내는 관찰자적 감성을 통해 인간과 공간의 관계를 섬세히 포착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빛을 단순한 노출의 개념을 넘어서, 감정의 톤을 설정하고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체적 매개’로 다른 작품들이 돋보였으며, 이는 사진이 가진 근본적인 힘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평가됩니다.
향후 본 사진 공모전이 단지 우수작을 선발하는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젊은 창작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으로 확장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수상작들은 그러한 가능성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수많은 빛이 춤추던 'DREAMWAVE'

청춘의 한복판을 수놓은 3일간의 대동제가 지난 16일 폐막했다. 아속한 비가 축제를 가로막기도 했으나, 잔디광장에는 3일 내내 학생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았다. 'brillante'의 연주 축제의 포문을 열었으며, '왕산악'과 'NOD'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낙산가요제'에서는 여러 참가자가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였다. 이후 영화 상영이 진행되며 학생들은 잠시나마 여유를 만끽했다. 이튿날엔 '탈패', '4호선 마이크' 등의 무대가 이어질수록 분위기는 점차 고조됐다. 또한 청아한 음성이 돋보인 '로시'를 시작으로 객석을 들썩이게 만든 '우원재'와 익숙한 멜로디로 관객의 폐창을 이끈 '이하이'의 공연이 펼쳐졌다. 마지막 날에는 극심한 호우로 인해 동아리 공연이 취소됐지만 아티스트 공연은 계획대로 진행됐다. 빗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특유의 밝은 에너지를 발산한 'UNIS'와 몽환적인 음색 속 강렬한 음악을 전한 'NELL', 영혼을 울리는 목소리의 소유자 '체리필터'의 무대는 한성인의 심장을 뛰게 했다. 눈을 땄 수 없는 퍼포먼스를 보여준 'VMZ'를 마지막으로 축제는 끝을 맺었다. 모두가 숨 막히게 뜨거운 열기에 취해 그 순간에 온전히 몰입했던 대동제, 그날의 우리에게로 걸음을 옮겨보자.

임지민 기자 seeshuron@naver.com



사진 : 이승희 기자

폭우 속에서도 함성을 지르는 관객들



사진 : 이승희 기자

동아리 '한 알' 부스에서 학생이 송편을 격파하고 있다.



사진 : 박석희 기자

회화과 부스에서 페이스페인팅을 받는 학우들



사진 : 박석희 기자

학생들이 시력에 참여하기 위해 산업시스템공학부 부스에 모여있다.



사진 : 이승희 기자

무대 대열을 갖추고 미소 짓는 'UNIS'



사진 : 임지민 기자

'체리필터'의 보컬 '조유진'이 관객에게 몸을 기울이며 노래하고 있다.



사진 : 이승희 기자

'우원재'와 관객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한다.



사진 : 임지민 기자

무대에 몰입해 공연하는 'NELL'의 보컬 '김종원'



사진 : 박석희 기자

댄스 동아리 'NOD'가 웅장한 군무를 선보인다.

질서없이 번져간 불빛
찬란히 겹쳐진 꿈만 같던 순간



사진 : 임지민 기자

'로시'가 무대를 활보하며 축제의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사진 : 박석희 기자

관객들의 호응을 유도하며 열창하는 '이하이'



사진 : 이승희 기자

'VMZ'가 관객들을 바라보며 퍼포먼스를 펼친다.



피 한 방울이 약이 되기까지, 생명의 공정을 거치다



<편집자주>

우리의 피로 만든 의약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많은 헌혈자가 다른 이들을 위해 기꺼이 팔을 걷고 혈액을 나누지만, 그 피가 의약품으로도 사용된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헌혈로 모인 혈액은 수혈용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생명 유지를 위한 의약품으로 제조되기도 한다. 이러한 의약품이 바로 '혈장분획제제'다.

혈장분획제제는 쉽게 말해 헌혈자의 혈액을 원료로 제조된 의약품이다. 헌혈을 통해 수집된 혈액에서 단백질 성분 추출 및 바이러스 제거 등 여러 공정을 거치면 마침내 혈장분획제제가 생성된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혈장분획제제는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수단이 된다.

앞으로도 혈장분획제제의 수요는 고령화, 감염병 증가 등의 이유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혈로부터 얻어진 혈액이 어떻게 혈장분획제제로 탈바꿈하는지, 그 구체적인 제조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박석희 기자 sukhee121@naver.com



사진: 연합뉴스

혈액 속 단백질을 변형 없이 보존해 필요한 성분만을 골라낸 것이 바로 혈장분획제제다. 이는 ▲혈액응고인자 제제 ▲면역글로불린 제제 ▲알부민 제제로 구분돼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일반적인 의약품은 여러 물질을 합성하는 공정을 거치는 반면, 혈장분획제제는 혈액에서 순수한 단백질 성분을 뽑아내기만 하면 된다. 육희정(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혈장분획제제는 대량의 혈장으로부터 특정 단백질을 추출해 농축시킨 의약품"이라고 말했다.

혈장분획제제의 핵심이 되는 단백질 성분은 혈액 속 '혈장'에 포함돼 있다. 혈액은 액체 성분인 혈장과 세포 성분인 혈구로 구성돼 있다. 혈장은 전체 혈액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수분과 함께 호르몬, 단백질 등의 성분이 녹아 있다. 반면 혈구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으로 구성돼 체내에서 다양한 생리 기능을 수행한다. 강재원(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혈장분획센터) 부장은 "혈장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분, 비타민, 호르몬, 효소, 단백질 성분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전했다.

단백질, 의약품으로 재탄생하다

혈장분획제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헌혈을 통해 수집된 혈액에서 혈장을 분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원심분리기'다. 원심분리기는 고속 회전으로 발생하는 원심력을 이용해 혈액 속 성분들을 밀도에 따라 분리하는 장치다. 이를 통해 혈장과 혈구가 빠르게 구분된다.

원심분리기를 거친 혈액의 밀도 차이에 따라 성분 추출이 가능해진다. 혈장은 전체 성분의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뤄져 상대적으로 낮은 밀도를 갖는다. 반면 혈구는 적혈구 등의 세포 구조를 지녀 밀도가 높다. 이에 혈장은 위로 떠오르고, 혈구는 아래로 가라앉는다. 육 교수는 "혈구의 세포 구조 내에는 여러 성분이 포함돼 순수한 물보다 높은 밀도를 갖는다"며 "원심력을 활용하면 혈구와 혈장이 분리된다"고 덧붙였다.

분리된 혈장은 혈장 내 존재할 수 있는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용매-세제 처리'를 거치게 된다. 용매-세제 처리는 외피를 가진 바이러스를 화학적으로 비활성화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용매

는 특정 물질을 용해시키는 재료다. 또한 세제는 지방 성분을 제거하는 '계면활성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비누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물질이다.

우선, 혈장 용액에 세제를 투입하면 외피 보유 바이러스의 외피인 지질막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한다. 세제는 물과 잘 섞이는 친수성 부분과 기름과 잘 붙는 친유성 부분을 동시에 갖고 있다. 친수성 부분은 혈장의 수분과, 친유성 부분은 외피 보유 바이러스의 지질막과 결합된다. 이후 용매가 작용해 지질에 결합한 친유성 부분을 제거하면, 바이러스는 외피를 완전히 상실하고 감염력을 잃는다.

용매-세제 처리 후에는 '냉에탄올 분획법'이 사용된다. 냉에탄올 분획법은 혈장에 낮은 온도의 에탄올을 넣으면서 온도, pH 등을 바꿔가며 단백질을 순서대로 침전시키는 방법이다. 이는 혈장에서 특정 단백질 성분을 추출하고 싶을 때 용매-세제 처리에서 완벽히 제거되지 않은 비외피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함이다.

냉에탄올 분획법을 활용하면 단백질마다 고유한 '등전점' 차이를 이용해 혈액응고인자, 면역글로불린, 알부민 등의 단백질을 분리할 수 있다. 등전점이란 특정 분자가 전기적인 전하를 띠지 않고 중성인 pH를 의미한다. 이 상태에서는 단백질 간 정전기적 반발력이 사라져 서로 응집하기 쉬워진다. 이때 용해도가 가장 낮아지면서 단백질이 잘 침전되는 것이다. 여기서 용해도란 특정 물질이 용매에 얼마나 잘 녹는지를 나타내는 정도다. 예를 들어 설탕은 물에 잘 녹지 않아 용해도가 낮다. 육 교수는 "에탄올 농도와 온도 변화는 단백질과 용매 사이의 상호 작용을 약화시켜 단백질의 침전을 촉진시킨다"고 전했다.

먼저 약 8%의 에탄올 농도와 -3°C의 조건에서는 피브리노겐이 분리된다. 에탄올 농도가 8%일 때, 피브리노겐의 용해도가 급격히 감소해 다른 단백질보다 먼저 침전되도록 한다. 또한 저온에서 단백질의 변성을 최소화해 기능을 보존할 수 있고 침전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육 교수는 "피브리노겐은 다른 단백질보다 용해도가 더 크게 감소하고,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먼저 침전된다"고 밝혔다.

혈장 용액으로부터 분리된 피브리노겐은 혈액응고인자 제제 생산에 쓰인다. 피브리노겐을 포함한 혈액응고인자는 출혈 시 혈액 내에서 연쇄적으로 활성

화돼 '혈전'을 형성하고 출혈을 막는 역할을 한다. 평소에는 비활성 상태로 혈액 내에서 순환하다가 출혈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해당 성분이 활성화돼 혈액응고를 촉진한다. 강 부장은 "혈액응고인자 제제는 지혈, 출혈 예방, 수술 전후 혈액응고 관리에 사용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혈장 용액에 에탄올을 추가로 투입해 농도를 25%가량으로 높인 후 온도를 약 -5°C로 낮추면 감마글로불린이 침전된다. 피브리노겐이 침전될 때의 조건보다 에탄올 농도가 상승해야 감마글로불린의 용해도가 감소해 효과적인 침전을 유도할 수 있다.

침전된 감마글로불린은 면역글로불린 제제에 활용된다. 감마글로불린과 같은 면역글로불린은 체내에 미생물이 침입하면 항원"과 결합해 면역 기능을 수행하는 단백질이다. 이때 면역글로불린의 Fab(Fragment antigen binding) 영역이 활성화된다. Fab 영역은 가변적인 구조를 갖는 항체의 항원 인식 부위로, 항원과의 결합을 가능케 한다. 면역글로불린이 투입되면 Fab 영역이 활성화돼 면역 반응이 촉진되는 원리다. 강 부장은 "면역글로불린 제제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자가면역 질환, 혈소판 감소증 등에 쓰인다"고 설명했다.

감마글로불린까지 침전되면 혈장 용액에는 알부민만이 남게 된다. 알부민은 수용성 단백질로, 타 단백질에 비해 잘 침전되지 않는 특징을 띤다. 육 교수는 "구조적 안정성이 뛰어난 알부민은 저온 및 고에탄올 환경에서도 침전되지 않고 용액에 남는다"고 덧붙였다.

혈액 내 단백질 성분의 50~70%를 차지하는 알부민은 최종적으로 알부민 제제에 사용된다. 알부민은 혈관 속에서 체액이 머물게 해 혈관과 조직 사이의 삼투압을 원활하게 한다. 삼투압은 액체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려는 성질을 말한다. 이로 인해 혈관 내에 농도가 높은 알부민은 주변 조직의 수분을 혈관 안으로 끌어들이고, 이처럼 알부민은 혈관 내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체내 혈액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혈관 내 적절한 수분이 유지돼야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할 수 있기 때문에 알부민은 안정적인 혈액 순환에 필수적인 요소다. 강 부장은 "출혈성 쇼크, 수술 및 외상 치료 등에 알부민 제제가 활용된다"고 전했다.

안전성과 범용성, 두 마리 토끼를 잡다

혈액 내 단백질 성분을 활용하는 혈장분획제제는 높은 생체적합성을 갖는다는 장점이 있다. 합성 의약품으로는 대체가 어려운 혈액 내 단백질을 직접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 부장은 "혈장분획제제는 혈액 내 특정 단백질을 유호 성분으로 사용하며, 해당 유호 성분은 생체 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단백질과 유사해 특정 질환 치료에 대한 효과가 합성 의약품보다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혈액형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점도 혈장분획제제의 이점으로 꼽힌다. 이는 응급상황 발생 시, 혈액형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도 신속하게 투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육 교수는 "혈장분획제제는 혈액형과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혈장분획제제가 의료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관련 산업도 확대될 전망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프레지던스 리서치(Precedence Research)에 따르면, 세계 혈장분획제제 시장은 2025년 약 314억 달러(한화 약 43조 원)에서 2037년 약 619억 달러(한화 약 85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강 부장은 "혈장분획제제는 재생의학, 희귀질환, 만성질환, 항체치료 등 다양한 의료 현장에서 사용도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국내외 수요 증가와 높은 시장 성장률로 혈장분획제제는 혁신 치료의 중심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혈장분획제제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헌혈물에 큰 영향을 받는 혈장분획제제의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혈액제제 규제 동향 정보집」을 통해 혈장분획제제의 품질관리 시 주의사항, 제제별 제조 방법 및 시험기준, 저장 방법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강 부장은 "혈장분획제제 정책 개선은 원료 수급 불안정, 공급난, 채산성 등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육 교수는 "혈장분획제제는 헌혈 의존도가 높고 바이러스 제거, 품질 관리, 보관 등이 까다로워 지속적인 가이더라인 개정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혈전: 혈관 속에서 피가 굳어진 덩어리

**항원: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세균, 바이러스 등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사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삼 학 송 ·

‘성공’이 아닌 ‘문제’를 말하는 용기

‘소외된 이들이 걸어갈 길을 비추는 가로등’ 편집국장으로 취임할 때 했던 다짐이다. <한성대신문>이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길 바랐다. 학내의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 방안까지 도출해내는 신문을 만들고 싶었다. 학생이 직접 만드는 신문으로서, 학생의 시선에서 학교를 바라봤다. 더불어 <한성대신문>이 학생들이 믿고 보는 신문, 어려움이 있을 때 찾는 매체로 인식되기를 희망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문제의식을 담은 보도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학생들의 불편은 학내 다양한 문제로부터 기인한다. 학생들이 겪는 문제를 지적하고, 나아가 대학본부 혹은 전문가로부터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이끌어 피해를 줄이는데 이바지하고자 했다.

그러나 문제의식을 담아 보도를 이어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학사회에서 대학언론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있었고, 문제를 짚어 보도하는 대학언론의 수도 줄어들고 있었다. 자연스레 학보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언론보다는 ‘소식지’에 그쳤음을 체감했다. 비판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보도는 꺼리고, 행사 홍보 등의 기사 청탁만이 이어진 탓이다.

이는 <한성대신문>이 문제의식을 놓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됐다. 직접

발로 뛰며 문제를 찾고,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강구해나갔다. 승강기 안전점검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해 대학본부로부터 교체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아낸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상상빌리지 입주생들로부터 호실 내 청소상태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 피해 학생을 인터뷰하고 상상빌리지 행정실로부터 해결 방안까지 받아낸 바 있다.

그 결과 본지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었다. 학내 문제를 다루니 학생들이 그 기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한성대신문>이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학내 문제가 있으면 본지를 찾았다. 본지가 추구한 문제의식이 대학사회 전반에 퍼졌음을 실감했다. 본지의 보도가 유의미한 결과를 낳았음을 반증하는 순간일 테다.

앞으로 <한성대신문>을 만들어갈 이들도 문제의식을 잃지 않길 바란다. 혹자는 학생의 시선에서 신문을 제작하고 해결책까지 도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시선은 각자의 위치에 따라 다르다. 학생기자는 그 차이를 좇는다. 드러나지 않은 불편을 포착하고, 학생을 대신해 먼저 말한다. 학보가 그런 목소리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정진이 계속되길 기대한다.

김유성 편집국장



연출된 범 속 편집된 권리

지난 23일부터 3일간 서울시 대חק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이하 영화제)가 열렸다. 영화제는 장애인이 제작한 작품을 통해 장애인의 삶을 조명하는 행사다. 정부는 2020년 「장애인문화예술원법」을 제정하며 장애인문화예술원 지원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현실은 제자리걸음이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 참여 및 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장애인은 전체의 2.9%에 불과했다. 실질적인 변화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법의 실효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장애인의 문화활동 참여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때다. **박석희 기자** sukhee121@naver.com

■ 기자수첩

말이 닿는 곳에 이해가 피어난다

세상은 복잡하다. 해결되지 않는 갈등과 수많은 사회 문제가 뒤얽혀 있다. 그 이유를 알고 싶었지만, 너무 어려웠다. 대학생의 눈높이에서 사회를 바라본 글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접어 든 <한성대신문>에는 학생이 바라본 세상의 모습이 담겨있었다. 학생이 쓴 기사라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필자 또래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이해하며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고 싶었다.

특히 청년 상당수가 ‘경제’ 분야에 무관심했다. 삶과 밀접하지만 정작 필수 교육은 부재한 영역이다. 이에 필자는 사회 문제를 경제 이론과 연결해 풀어나가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제 타고 사회 한 바퀴’ 코너를 연재했다. 대출 관련 경제 이론을 토대로 카드론 운용 정책의 구조적 문제와 그 해법을 풀

어낸 사례가 일례다. 1년여 간 연재를 이어오며 해당 코너는 몇 년이 지나도 지속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청년이 무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례가 목격됐기 때문이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빚을 내고 돌려막기 하는 등 고강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들이 확인됐다.

코너를 연재하며, 청년은 그저 무지한 개인으로만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취재 과정에서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피해를 입는 이유를 물으면 돌아오는 대답은 매번 같았다. “청년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하지만 문제를 짚는 많은 답변 속에서 정작 청년의 시선은 종종 배제돼 있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년 답변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무지로 인한 피해를 청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기에 청년이 이해하며 결국 동참으로까지 이어지도록 돕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필자는 다음 학기부터 기자가 아닌 편집국장으로 활동한다. 청년과 학생의 이야기를 직접 듣기는 어렵겠지만, 그들의 목소리를 더욱 생생하게 담아내는 창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단순히 사회 문제를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펼치고 서로 소통하며 함께 해법을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한다. 청년 당사자의 시선이 반영되지 않는 답변에 한계를 느낀 만큼, 우리 신문이 간극을 메우길 바란다. 학생의 고민과 목소리가 학교와 사회에 닿아 조금씩 변화를 노정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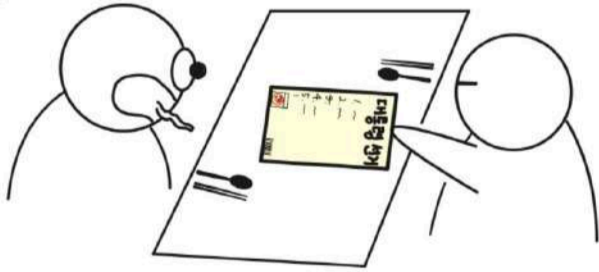
이승희 기자 sun2sideup03@naver.com

낙산만평

이승희 기자 sun2sideup03@naver.com



이걸 가져오면 어떡해! 그냥 보내주던데...



■ 낙산에 올라 ‘쉬었음’ 역대 최고, 실업률은 왜 최저인가?

2025년 1분기 한국의 공식 실업률은 2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 수치의 배경에는 ‘쉬었음’ 인구, 즉 비경제활동인구 중 일할 의사가 없는 집단이 44만 3,000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노동시장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냈다. 특히 청년층의 ‘쉬었음’ 비중은 5.4%로 2013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고, 이들 중 75.6%는 구직 의사가 없는 상태로 나타났다. 이는 실업률이 낮다는 통계적 환영 속에 청년층의 체감 고용악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업률은 ‘구직의사가 있는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 실패자의 비율로, 구직 포기자나 ‘쉬었음’ 인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2025년 1분기 청년층 실업률은 7%였으나, 체감 실업률은 16.4%로 공식 수치의 2배 이상을

기록했다. 이는 단기 일자리 증가로 인한 ‘불완전 취업’ 상태가 확대되면서, 청년들이 임시에 머물거나 구직 자체를 포기한 결과다. 실제 2023년 4분기부터 2024년 3분기까지 청년 ‘쉬었음’ 인구는 33.6만 명에서 42.2만 명으로 25.4% 급증했으며, 이중 60%는 반복된 취업 실패와 일자리 미스매치로 인한 비자발적 이탈이었다.

‘쉬었음’ 인구 증가는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닌 노동시장의 구조적 결함을 반영한다. 첫째, 고용의 질 저하로 인해 청년들이 안정적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장기적인 취업 준비 기간이 늘어났다. 2025년 2월 기준 청년층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8.1시간으로 전년 대비 4.5시간 증가했으나, 이는 단기·임시직 확대에 따른 현상

로 해석된다. 둘째, 일자리 양극화로 인해 고숙련 직종과 저임금 서비스업 간 격차가 심화되며, 청년들이 원하는 수준의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졌다. 대졸자 비율이 높은 청년층일수록 이러한 미스매치가 두드러지며, 이는 서울청년패널조사에서 니트(non-employment) 청년의 50% 이상이 ‘비구직 휴식형’인 결과와 연결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신규 채용 확대 등 양적 정책을 강조하지만, 이는 단기적 해결책에 불과하다. ‘쉬었음’ 인구 급증의 근본 원인인 일자리 미스매치와 고용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 교육 연계 강화를 통한 직무 교육 확대, 창업 지원 프로그램 도입 등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

하호철(패션 1)

기자사령

- 임정자(조수윤(인문 1))
- 임지민(사회과학 1)
- 김혜윤(상상력 1)

동정란

- 정성훈(시응용학과) 교수**
정 교수는 지난 5월 <시와 예술 창작 자동화> 도서를 발간했다.
- 신재흠(교육대학원) 교수**
신 교수는 지난 5월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공로대상을 수상했다.
- 전유부(컴퓨터공학부) 교수**
전 교수는 2025 한국정보처리학회 산학협력본부-한성대학교 산학협력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성대신문사 0287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Tel 02)760-4186

발행인 이창원 편집인김주환 김남용 편집국장 김유성 디자인 (주)나눔커뮤니케이션

■ 의화정

우리는 어떤 사람이 변함없는 모습을 보일 때 ‘한결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늘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한결같다’는 말을 하고, 항상 열정적인 태도로 적극적으로 매사에 임하는 사람을 볼 때도 ‘한결같다’는 말을 한다. 과거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때 ‘한결같다’는 말을 한다. 그리고 ‘한결같다’고 말할 때에는 대부분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런 말을 사용할 때가 많다.

사전에서 ‘한결같다’를 찾아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똑 같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그저 변함없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한결같음이 유지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결같은 모습이 유지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일까.

‘한결같음’으로 가는 길

얼마 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골 마을의 바다를 보러 간 적이 있다. 바닷가 옆 해안도로에 있는 작은 바위에서 내려다보는 바다 풍경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오랜만에 그 바다를 보러 갔을 때의 느낌은 ‘아, 여기 바다는 정말 한결같구나!’라는 것이었다. 그 순간, 내가 그토록 많이 보아 온 그 바다의 모습이 내게 늘 똑같은 모습만 보여준 것은 아니라는 것이 떠올랐다.

늘 그 자리에서 나를 맞아준 한결같은 바다. 늘 그 자리에 있는 바다지만 어떤 날은 파도를 건디는 모습을 보여줬고, 어떤 날은 바람을 건디는 모습을 보여줬다. 파도도 건디고 바람도 건디는 과정을 거치면서 늘 그 자리에서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었던 것이다. 한결같은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지만 변함이 없다는 것은 정체되어 있

다는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도록 무수히 노력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바다가 알려주는 것 같았다.

그때, 나는 우리의 삶에서 한결같은 것이 무엇인지 고민이 되었다. 누군가에 대한 태도도, 믿음도, 누군가를 향한 행동도 한결같은 것은 그저 늘 똑같은 게 아니라 한결같이 위해서는 그 안에 숨어 있는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어떠한 믿음에 대한-그것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든, 자신의 신념에 대한 믿음이든-한결같은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어 하는 것이기에 그 무게감이 더 크게 느껴졌다. 한결같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해 준 바다가 더 고맙게 다가오는 날이다.

노정은(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교수

(편집자주)

'61일', 윤석열 탄핵 이후 제21대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까지 소요된 기간이다. 윤석열 정권이 비상계엄이라는 미명 아래 실행에 옮기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내란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강했던 만큼, 예견된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 이번 대선 개표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당선인을 선언했고 이재명 당선인은 지난 4일부터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대선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이를 통해 유권자가 진정으로 주도하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자산 형성 활성화 ▲구직활동 지원 ▲주거 안정 ▲생활 안전망 강화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을 약속한 바 있다.

점차 실현될 정책들은 하나씩 일상 속으로 스며든다.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그 변화를 자신의 삶 속에서 온전히 활용할 수 있을 테다. 이재명 정부의 청년 관련 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 정책들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아직 남아 있는 청년의 목소리는 어떻게 반영돼야 할까. 지금부터 우리에게 다가올 변화의 조짐들을 하나씩 훑아보자.

이승희 기자 sun2sideup03@naver.com



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출생

1964년 12월 22일

학력

•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
•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경력

•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18기 수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
• 제19~20대 경기도 성남시장(전)
• 제35대 경기도지사(전)
•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전)
• 제21대~22대 국회의원(전)
• 제6대~7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전)

사진 : 연합뉴스

새롭게 출범한 정부,

청년 삶의 변화를 예고하다

1 청년미래적금 도입

청년이 2년 간 400만 원을 납입 시 만기 때 1,200만 원과 이자 수령, 청년 맞춤형 재무 상담 운영, 비트코인 등을 활용해 거래하는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2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이자 면제 대상 확대, 이공·인문계 장학금 상향

3 구직활동 지원 강화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자발적 이직 청년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채용연계형 직업교육 지원

4 청년 국민연금 확장 지원

생애 첫 보험료 지원을 통한 연금 가입기간 연장, 군 복무 크레딧 확대

5 월세 지원 및 월세 세액공제 규모 확대

무주택 청년 가구 대상 월세 지원 대상 및 세액공제 확장

6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 및 고품질 공공임대 증대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증진, 상생형 공공기숙사 대폭 공급 예정, 주거설계지원 사업 추진

7 범죄예방 시스템 및 긴급대응체계 강화

전세사기특별법 피해자 구제 확대, 가해자 처벌 강화, 정주 환경 안전성 개선

8 청년 창업 기업 지원

청년을 위한 미디어 창업 허브 조성, 창업 관련 전문가 멘토링 지원, 글로벌 시장 진출 원조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핵심 과제로 보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가칭 청년미래적금)'을 추진한다. 과거에 운영된 해당 제도는 만 15~34세 청년 중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등을 대상으로 설정됐다. 대상 청년이 2년간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재직 중인 중소기업과 정부가 각각 적립금과 이자를 더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구체적으로는 월 16만 원, 총 4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400만 원씩 매칭해 지급하는 구조였다. 이번 정책 도입 시 중소기업 장기근속 청년에게 추가 지원금도 제공될 예정이다. 허재영(연세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교수는 "정부와 중소기업의 공동 부담 구조가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만, 프리랜서나 미취업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제도의 한계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청년 맞춤형 재무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청년 자산 관리의 안정성을 높이고 다양한 투자 경로를 통해 자산 축적을 지원하려는 방안이다. ETF는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로 하는 금융상품이다. 이를 국내 증시에 상장하고 관련 감독 체계를 마련해 청년의 투자 접근성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학(원)에 재학 중인 청년을 위한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도 병행된다. 이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이자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의 대학생에게 재학 중 상환을 유예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시점부터 원리금을 갚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현행 약 2천만 원 수준의 상환 기준선을 상향 조정하고 지원 대상과 이자 면제 기준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이공계 장학금 신청 요건 확대 및 대학원생 지원이 이뤄진다. 인문 100년 장학금 지원과 희망사다리 II 국가장학금 지원도 증진된다.

취업 불황 속 청년 구직자에 대한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구직활동 지원금 ▲이직 청년 구직급여 ▲채용 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이 구직할 때 일정 금액을 지원하며, 자발적으로 이직을 택한 청년에게 생애 1회 실업급여와 유사한 형태의 급여를 제공한다. 더불어 기업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실제 고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상술한 지원에 대해 고용 활성화를 위한 지역 중심의 고용정책을 수립·집행하며 부처·지자체별로 분산된 공공고용서비스를 통합해 운영할 예정이다. 공공고용서비스는 고용2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울시 일자리포털 등 정부나 지자체가 국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공하는 공식 취업 지원 서비스 체계를 의미한다. 이겨레(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청년특별위원장은 "청년 일자리 정책은 개인 역량 향상이

아닌 최소한의 등용문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해당 정책과 함께 양질의 노동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합의된 국민연금 개혁안에 포함된 청년 국민연금 지원 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해당 안은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청년층의 부담이 증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가 청년에게 생애 최초로 연금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고 '군 복무 크레딧'을 확대 적용한다. 군 복무 크레딧은 2008년 이후 병역을 이행한 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현재 6개월의 추가 가입 기간이 부여되고 있으나 점차 확대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청년의 취업 시기가 늦어지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줄어들면서 해당 제도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노후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를 강화하는 방안은 주요하게 작용할 것이며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청년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한 방책도 마련됐다. 먼저 무주택 청년 가구 월세 지원과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이다. 개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청년이 임대 주택을 거주하면 월세에 임대인의 세금을 함께 부담했다. 이때 월세 세액 공제를 통해 실주거비를 낮추는 형식이다. 이어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기한 연장을 통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이뤄진다. 기숙사의 경우 기숙사 사생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데, 상술한 법령을 통해 일시적으로 면세됐다. 해당 법령은 당초 올해 하반기까지로 한정됐으나 적용 기한을 늘려 면세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공적 차원의 거주지 공급, 주거 설계지원 등 주거 정책도 시행될 예정이다. 거주지 공급을 위해 청년이 거주하기 적합한 공공임대·공공분양, 1인 가구·청년 대상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청년주택 행복연합기숙사 등의 공급이 확대된다. 처음 독립하는 1인 가구를 위해 전월세 계약을 돕는 사업을 시행하고 세어하우스, 여성 안심주택도 지원된다. 민달팽이유니온은 "분양주택 공급 등 이재명 정부의 청년 주거정책은 임차인 즉, 세입자의 권리는 다루지 않았다"며 "불리한 계약을 요구받지 않을 권리, 보증금을 잃어버릴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권리 등 주거권을 우선시하는 주거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안전한 정주 환경을 위한 범죄예방 시스템 및 대응체계도 강화된다. 특히 여성 1인 가구 등 범죄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전망이 보완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구제 방안도 확대될 계획이다. 허 교수는 "해당 법령의 경우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호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보증보험 확

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전세계약의 공적 중개 시스템 구축 등과 같은 사전 예방책도 요구된다"고 논했다. 이어 민달팽이유니온은 "전세사기 대응 관련 정책도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방책이나 통제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조속히 관련 정책의 방향을 밝히고 강력히 정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미디어 창업 허브(Startup Station)'를 조성해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창작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창업 컨설팅, 마케팅, 법률 세무 등의 전문가 멘토링도 병행된다. 또한 스타트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현지 진출 상담과 번역 및 더빙 등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도 제공될 방침이다.

이외에도 ▲청년 식생활 지원 개선 ▲청년 문화 향유 확대 ▲장병 지원 강화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정책을 마련했다. 대학생 '원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장하고 미취업 청년에게 식품 바우처를 제공하는 등 기본적인 생활 지원 체계가 강화된다. 이와 함께 청년 문화패스를 지원하고 군인 통신 요금의 할인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 시행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이재명 정부의 정책 전반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과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당수의 정책이 정부 재정에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산 투입이 중단될 경우 전반적인 정책의 운용 여부가 불확실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기 변동, 세수 감소,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등 외부 변수의 영향이 커지는 상황에서 해당 정책들에 대한 장기적인 재정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허 교수는 "이재명 정부는 교통·통신·거주비 등의 생활 밀착형 정책을 통해 정책 체감도를 높인 점은 긍정적이지만, 일회성에 그칠 우려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예산 확보와 제도화 등의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을 계기로 정치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높아진 반면, 청년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디지털 노동자, 은둔·고립 청년 등 정부가 다뤄야 할 섬세한 의제들이 거의 다루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허 교수는 "이재명 정부는 청년 패키지를 활용한 통합 지원을 강조했다지만, 은둔·고립 청년 문제 등 섬세한 주제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세부적인 제도 설계 과정에서 청년층의 직접적인 참여가 강화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청년이 겪는 일자리, 주거, 불평등과 같은 문제 해결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미래세대의 시각을 반영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 위원장은 "정권의 이해와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청년이 활용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 산하 위원회 등에 대표성을 지닌 청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소득대체율 :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에 대해 수령할 연금액을 나타내는 비율